

정지수(James) & 김지영(Joy) 2025년 2월 선교 소식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1월 8일에는 시드니 북부해변장로교회 김석동 목사님과 저희 부모님 그리고 교회 성도님들께서 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학생들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예배시간에 특송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월 5일에는 썸낭 선생님의 결혼식과 율 선생님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두 곳의 결혼식장을 바쁘게 오가며 두 분 선생님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집 앞에 대형 텐트를 설치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룹니다. 거의 모든 마을 사람들이 참석해 결혼을 축하해 줍니다. 음악 밴드의 축하 공연 후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신나게 춤추는 시간도 있습니다. 결혼식이 마치 마을 잔치와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캄보디아는 한국과 다르게 신랑이 신부집으로 장가를 간다고 합니다. 장모님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여 산다고 하니 캄보디아는 모계사회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집도 보통 막내딸에게 유산으로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캄보디아 분들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합니다. 학교에서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고 더 활동적입니다.

지난 1월에는 기온이 20도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새벽에는 춥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날씨가 시원해져서 지내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은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은 춥다고 두꺼운 겨울 잠바를 입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저는 세종학당에서 열심히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한국에 가고 싶은 꿈을 갖고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티어'라는 학생은 이화여대 입학의 꿈꾸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선교사는 학교 찬양팀에서 피아노 반주로 찬양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후원자님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진 카페에서 교사들은 김지영 선교사가 만들어준 아침을 먹고 학교로 출근합니다. 학교에 교사들이 쉴 수 있는 카페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김지영 선교사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두 번 프놈펜에서 대학생들을 위한 독서모임이 있습니다. 독서모임 때 회원들은 자신이 읽은 책을 소개하고 느낀 점을 발표합니다. 연말에는 회원들의 독서 감상문을 모아 책으로 출판할 계획입니다. 독서모임 회원들이 더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지원금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후원계좌:

국민은행

Cheong Ji Soo

006-21-0932-729